

서울대학교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입학생의 학업 성취 및 대학생활 분석 연구

I. 연구 목적

흔히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공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공교육, 특히 대학 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 출신의 학생들이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경로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대학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계층 구성은 그 사회의 제도적 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계층 구성에 대한 관심도 이와 결부되어 있다. 개천에서 난 용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한국 사회의 평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여러 기능 중 하나는 생애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능력 있고 가능성 있는 개인이 성장과 배움을 경험하고 자신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이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사회 통합을 비롯한 사회 유지를 위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학생의 계층 구성이 변화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좋은 학생일수록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학 입학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으면 한국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울대학교는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형을 2009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중 「저소득 가구 학생 전형」(아래에서는 ‘기회균형 전형’으로 지칭함)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어 온 이 전형은 보호자가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인 학생들을 정원 외로 190명 내에서 선발하고 있다.¹⁾

이 희 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부교수

1) 하지만, 이 숫자는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I)의 3개의 세부 전형(저소득 가구 학생, 농어촌 학생, 농업계일고교 졸업 예정자)의 선발정원을 합한 숫자로, 전형별 선발 제한 인원은 폐지되어 실제 「저소득 가구 학생」 전형을 통한 선발 인원의 수는 적게는 30명(2009년), 많게는 123명(2011년)으로 나타나, 그 수가 일정치 않고 편차가 큰 편이다.

교육 기회의 제공은 입학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입학 기회와 더불어 서울대학교에서 교육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기회균형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 받고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빈약하다. 뿐만 아니라 입학전형의 다양화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이해도 부족하여 특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 편차를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이들의 학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에게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사전 연구에 따르면 입학 초기부터 입학전형별로 학업 성취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공계열 학생들은 학기가 지나도 다른 전형의 입학생과의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대학공부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입학한 뒤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를 통해 대학 생활과 공부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에 대한 과정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서울대학교의 교육 경험이 기회의 제공을 넘어서서 어떠한 성장과 배움의 과정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이 대학생활 및 대학공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제공할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대학생활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적이고 결과적인 격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질적이고 과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입학생 중 이공계열 8명, 인문사회계열 6명 총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2회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 내용은 학생들의 가정 배경과 성장 과정,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 경험과 대학 입학 이후의 교육 경험 그리고 이후 진로와 포부 등에 초점을 두고 다루었다. 또한 학생들의 이전 성장 과정과 교육 경험을 분석의 맥락으로 삼고자 학습 생애사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 학생의 학업 성취와 대학 생활은 삶 전반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생애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학업에 대한 태도나 행위를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층 면담의 시기별 주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심층 면담 시기별 주제

주제 영역	1차 면담	2차 면담
학교 경험	고교 이전의 학습 경험 대학 수업 경험	대학에서의 학습 학업 이외의 학교생활
성장 과정	가족 구조, 가정 배경, 성장 과정	학습 생애사
진로계획과 실천	졸업 후 진로	희망직업, 최종 희망교육 수준, 진로 모색 관련 경험

또한 학업적인 어려움이 큰 학생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학업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인 학생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여 학업성취가 우수한 참여자 2명을 심층 면담에 포함하였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학업적 성취를 비롯한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제언

연구는 이들의 가정 배경과 성장 과정, 서울대학의 입학 경험, 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 대학생활 경험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빈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공교육 중심의 교육 경험을 갖고 있었다. 또한 심리적으로 열등감과 위축감을 안고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대학 공부를 시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초 학력의 격차나 배경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업에 정상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웠다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학업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학 공부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주변의 도움을 통하여 이를 조금씩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으며 성장과 배움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회균형전형 입학생을 위하여 학업적 지원과 대학생활 적응 지원 등의 두 가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초학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초교과목 구축, 교과목 튜터링, 학습자들의 지적인 능력이나 배경지식의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경험한 지적인 열등감과 위축감은 수업을 통해 극복되기보다는 많은 양의 지식 전달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오히려 심화된다. 출발선에서부터 느껴지는 격차와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치 않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은 학생들이 학업 위축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하고,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들이 경험하는 학업의 어려움은 일방적으로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학습 상황이나 능력을 고려치 않는 수업을 통해 심화된다. 이러한 수업 경험은 대학 이전의 교육 경험으로 인한 격차를 더 커지게 만들고, 학업과 대학생활에 대한 위축감이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수업 텍스트와 방식을 정하고, 내용 이해가 쉽도록 잘 설명해주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출발선이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런 수업을 경험한 일부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하여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보다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학생 스스로 생각할 거리와 이야기할 거리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수업에서는 지적인 흥미도 불러일으키게 된다.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또 다른 경우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것에 중점을 둘 때이다. 이러한 수업에서 이론은 시험을 위해 숙지해야 할 지식이 아니라 실생활과 연결되어 이해되는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 지식 생성 과정에 참여하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며, 학업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린다. 스스로 공부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업에 몰입하고 효능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 수업은 학생 참여적 수업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회균형 전형을 도입한 취지와 선발 절차를 볼 때, 기회균형 전형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이루어낸 성취와 이들의 우수한 학업적 잠재력을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기회균형 전형의 입학생들은 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입학 자격을 얻은 것이며 이는 결코 '시혜'나 '배려'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균형 입학생들이 경험하는 배경 지식이나 선행 지식의 격차가 학습자로서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생들의 선

행지식과 배경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학업적 잠재력이 발휘될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학의 교육 환경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학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교수자나 학내 구성원들이 이들의 학업 배경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을 이룰 때, 이들이 서울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심리적·물리적으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도록 서브라임 학습공동체, 멘토링, 단과대학 및 학과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 생활 및 진로지도를 제공하는 학사지도, 심리상담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사항은 현재 각 학과와 학내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관련 유관기관들이 협력적 지원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러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들은 교수와 학생, 지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이 스스로를 '정정당당하게 입학하지 못한', '과분한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하여 '서울대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신입교수 워크숍이나 교수 워크숍 등을 통해서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교수자는 학생지도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전공 분야의 가장 믿을 만한 조력자로서 학생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기회균형 입학생의 추수 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반영될 것이고, 집단 학습상담, 학사지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기회균형 입학생들의 학업 특성 분석 자료는 학내 상담 유관기관과 공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도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적 지원들은 교수와 학생, 지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서울대학교가 소외 계층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이루는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희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부교수)

공동연구자 :

이혜정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이지연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